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박다현**

정해일***

장한일****

황정하*****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25~64세), 노년층(6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였으며, 각 연령집단별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에서는 사회자본, 사회적 고립감과 가족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포용성이 지속거주의향에 각각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의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 시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농촌기본소득, 지속거주의향, 공동체 의식

* 본 연구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연구용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2차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제1저자: 전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농촌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이다 (E-mail: dahyun@nu.ac.kr).

*** 제2저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

I.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심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사회·경제·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a).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적·물리적 시설을 확충하거나 각종 복지서비스 공급의 수준 높이거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현재의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우려가 높은 농촌지역 내로 인구유입 및 사회적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통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는 경제적·사회적 취약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안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민 개개인에게 근로 활동 여부나 재산 및 소득 등과 같은 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09; Van Parijs, 2004). 이는 자산조사를 통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기존의 공공부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사회계층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며, 신청주의 방식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유종성, 2018; 이지나·황명진, 2022). 따라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의 연령,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인 기본소득모델(Universal Basic Income)을 적용

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평가, 사회정책 등이다
(E-mail: hijk@korea.ac.kr).

*** 제3저자: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집단정체성, 복지, 선거부정, 이민 등이다(E-mail: hanilchang@kookmin.ac.kr).

**** 교신저자: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등이다(E-mail: jhwang@jnu.ac.kr).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역외 인구유출 방지 및 추가적 인구 유입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효과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역외로의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 내 신규 유입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는 지역의 생활여건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닌 감정적 유대감과 애정인 지역에 대한 신뢰나 소속감, 참여도나 복지서비스에 인식(김영주·유병선, 2012; 박해균, 2018; 오미영, 2008; 이경환, 2008; 이항미, 2019) 등과 같은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여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 자본 등에 초점을 두고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거주지역의 객관적 주거환경이 같더라도 거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거주에 대한 차별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An et al., 2021)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로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현재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농촌지역 내 거주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을 제고하기 위한 연령집단별로 차별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역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 사업이 당초의 성과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심재현 외, 2017).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귀농 및 귀촌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거주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거나, 농산물 생산량 증진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산업 유치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정주 및 여가의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하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본적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난개발로 인해 주거지와 산업공장시설이 인접하여 입지함으로써 공장의 악취 및 오염 물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송미령 외, 2021).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를 조사(김민석, 2019)한 결과, 농촌지역

이 소득 기회(일자리)가 부족하고 문화·여가 등 생활기반의 열악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실이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기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지역 내 정주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는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관련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촌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거주의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집단별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을 높일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수집된 주민조사 원자료를 2차자료로 활용하였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인구감소 농촌지역이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다른 농촌지역 사회조사와는 달리 지역 내 거주 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촌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하나의 유형이다. 2012년 독일의 뮌헨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14차 총회에서 ‘농촌 개발을 위해 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RFD)’ 내에 농촌기본소득(Rural Basic Income: RBI) 도입을 제안하였다(Jahn, 2012).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농촌지역의 공동체 문화나 소수 민족의 문화 및 언어를 보전하는 사회적 기여하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 유럽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농촌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농촌의 구조적 결함을 줄이는 데 있어 기여도가 높으며, 도시와 농촌 간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유지하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Jahn, 2012).

이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기본소득 정책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1년 11월 2일 제정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시범지역과 비교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수립하였다. 농촌기본소득은 기존 농촌 정책으로는 인구소멸과 함께 심화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 진단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농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정책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 여부 및 소득수준과는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모든 주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연천군 청산면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5가지 구성 원칙(BIEN, 2021) 모두를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과, 매월 30일 전후로 지급한다는 정기성, 가구단위가 아닌 주민 개인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개별성, 노동 여부 및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무조건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금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은 경기북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수, 인구증감률, 지역소멸지수, 고령인구 비중, 산업구조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정 및 고시한 바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이에 포함되었다. 먼저 인구소멸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0.5 미만인 소멸 위험지역은 가평군(0.30), 연천군(0.30), 양평군(0.31), 여주시(0.41), 포천시(0.45), 동두천(0.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는 가평군(-13.89), 양평군(-13.5), 연천군(-10.89), 포천시(-8.66), 여주시(-8.63), 동두천시(-5.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상대 외, 2022).

조사지역인 청산면은 연천군 내 10개 읍·면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0.17로 소멸 고위험지역이며, 노령화지수는 709.68%로 경기도 평균 105.51% 보다 약 6.7배나 높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최북단 접경지 농촌지역이면서도 각종 군사시설 및 수도

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개발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이다(박다현·황정하, 2023).

도시 중심의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져 가고, 농촌에서의 빈곤화 현상의 가속화로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감소 및 인력 유출, 산업쇠퇴로 인한 정주 환경의 쇠퇴, 인구 고령화,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농촌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공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값싼 식량 및 노동력의 제공을 중심으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Timmer, 1988).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 및 농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농업 및 농촌의 본질적인 가치와 고유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단순한 생산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공간, 경제 활동공간, 환경 및 경관 공간, 그리고 문화 및 교육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박진도, 2010). 여기에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된다면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보전 및 발전하는 방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촌지역의 생태 및 문화 자원은 도시민이 쉬터로서 농촌을 찾는 동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업·비농업 활동으로 농촌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과밀화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송원규, 2021).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농촌사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를 위기로 몰아갔던 농업구조조정 및 대규모 정책, 외부 자본과 함께 난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했던 농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도시와 격차를 보이는 농촌지역의 복지, 의료, 돌봄, 교육,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지속거주의향의 개념 및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심각한 역외 인구유출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공동체 의식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는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속거주의향

은 정주나 계속거주의사와 유사한 용어이다. 안지은과 김국선(2015)은 ‘정주(定住, settlement)’를 ‘인간이 일정한 장소적 영역에서 영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용진과 김성희(2016)는 ‘계속거주의사’를 ‘자신이 거주하던 집 또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경영 외(2018)는 ‘지속거주의향’을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지속거주의향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또는 특정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마음이나 의지가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거주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주거여건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유병선, 2012; 홍성효·임준홍, 2023).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 의식이 특정한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경환, 2008)이라고 하였으며, 지역사회 유대감과 사회적 자본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거주만족과 지속적인 거주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오미영, 2008; 이경영 외, 2018). 이상의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 및 사회적 측면 모두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속거주의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종용, 2019; 박준범·마강래, 2020; 이기영 외, 2007; 임준홍·홍성효, 2017).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거정책 또는 노인복지정책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노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지역주민의 지속거주의향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이주의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속거주의향을 연구가 있다(김보현·최화식, 2004; 김영주·유병선, 2012; 이경환, 2008; 임정빈 외, 2012). 타지역으로의 이주의향과 지속거주의향은 유사한 논리적 맥락하에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보다는 역외로 이탈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개인특성과 지역사회 생활여건이나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이다(김용진·김성희, 2016; 김중은·김성희, 2014; 박해금, 2018; 최영출, 2019). 지속거주의향에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해당 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도시나 신도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사례

는 거의 없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에서의 지속 거주 의사나 이주의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Clark & Onaka, 1983). 즉, 지속거주의향에 있어 청년층은 주로 경제활동 기회나 결혼을, 중장년층은 보건·복지환경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노년층은 의료 및 복지시설, 사회적 관계, 안전 및 환경의 쾌적성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고 한다(김동신·허성욱, 2023; 김상희, 2012; 김수영 외, 2017; 김용진, 2013; 김화연·이대웅, 2022; 이지은·이경은, 2020; 이찬영, 2018; 홍성효·유수영, 2012). 이와 같이, 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애주기 또는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 사회적 관계 특성 등이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급격한 인구감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된 연구사례나 연령집단별 지속거주의향을 고찰한 연구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높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3. 농촌지역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행복 및 삶의 질

행복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구교준 외, 2015; 이유택, 2018). 그중 Diener(1984)에 의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의 개념이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행복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박주연 외, 2008). 행복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 Ryff(1989)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PWB)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말한다(Ryff & Singer, 2000).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성장을 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엄창욱 외(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삶의 만족도가 청년의 정착과 귀환에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거주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는 지속거주의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건강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여유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영양제나 병원 방문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신체적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중 하나는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로 인해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 효과이다 (Standing, 2017). 이렇듯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높아지면 가족 및 마을 주민과의 교류 증가로 인해 고독감 역시 완화 시킬 수 있다. 고독감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접촉의 수준과 실제와의 괴리가 생겼을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으로(Perlman, 2004), 노년층의 고독감은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으로 청년층의 일시적 고독감과 다른 만성적 형태를 띠게 된다(백옥미, 2018). 따라서,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주 주민이 경제적 여유를 느끼고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 시키게 된다면 다른 주민과의 관계가 넓어짐으로써 사회적 관계 또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3) 사회관계망

사회적 자본은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집단의 문화나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념 적용에 있어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김태준, 2010). Putnam et al.(1993)은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최순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 형태나 면적 등 물질적 환경 만족보다 이웃 관계 만족과 같은 정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희(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형성된 주민의 소속감을 통해 다른 주민 또는 이웃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복한 감정이 향상되며,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참여 및 지역사회 내 신뢰가 형성되며 아울러 유대관계 역시 증가하고, 외로움 등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는 복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 변화 가능성을 가지는 데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정책적 이슈, 특정 사건의 발생, 세대 효과 등 사회적 맥락을 따른다(김영순·여유진, 2011).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며 지역주민들은 복지정책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있어 복지정책은 큰 영향을 미친다(강정규, 2015). 따라서 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소득을 받고,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중 하나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본적 소득보장으로 한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 활성화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비활동이 증가할 것이며, 소비활동이 다양한 지역주민의 삶의 다차원 간 균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공동체로 마을 단위를 벗어나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읍·면 단위로 형성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성주인 외, 2013; 윤소영, 2009). 현재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역 과소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현상은 물리적 생활환경의 저하와 지역의 활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기능 역시 퇴조시키고 있다(성주인·채종현, 2012). 이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농촌공동체 활력 증진으로 삼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 시키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공동체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지나·황명진, 2022).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과 같은 금전적인 대가가 없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심광현, 2011; 홍석한, 2017). 성공적인 지역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는 포용성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사고 방식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장소의 적응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차원의 적응까지 가능하게 한다(Borrrup, 2020).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며 지역사회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갈 힘을 제공한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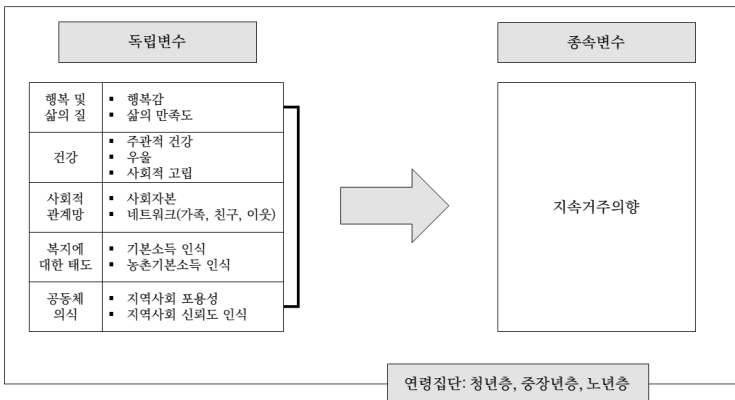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년도 조사는 사회정책의 시행과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목표로 2022년 3월 5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총 2,552명을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이다. 그리고 연령집단별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을 차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19세~34세),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 등으로 모집단을 구분하여 자료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속거주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연령집단별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거주의향을 종속변수로 행복 및 삶의 질, 건강, 사회적 관계망, 복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청년층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 건강, 사회적 관계망, 복지에 대한 태도, 공동체 의식은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장년층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 건강, 사회적 관계망, 복지에 대한 태도, 공동체 의식은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년층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 건강, 사회적 관계망, 복지에 대한 태도, 공동체 의식은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 및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지속거주의향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지속거주의향을 묻기 위해서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1점(‘거주의향이 전혀 없다’)에서 5점(‘거주의향이 매우 강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독립변수

가. 행복 및 삶의 질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캔트릴 사다리 척도(Cantril Ladder Scale)와 Diener의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활용하였다. 첫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ntril(1965)이 개발한 캔트릴 사다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척도는 단일문항으로 사다리의 맨 위는 10점(‘가장 만족스러운 상태’), 사다리의 맨 아래는 0점(‘가장 불만족스러운 상태’)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만족도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99로 나타났다.

나. 건강

첫째,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Idler & Benyamini(1997)가 개발한 주관적 건강수준(SRH: Self-rated Health)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일문항으로 1점('전혀 건강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건강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전경구·이민규(1992)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86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사회적인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et al.(1980)이 개발한 고립감 척도(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김옥수(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감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09로 나타났다.

다. 사회관계망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자본이나 대상자 네트워크 수준을 측정하였다. 첫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카사키 요시유키(2011)가 개발한 마을 사회자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차원은 신뢰, 규범,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자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17로 나타났다. 둘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Lubben et al.(2002)이 개발한 사회관계망 수정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R)를 활용하여 가족, 친구, 이웃 관련 네트워크 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각 문항과 관련해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가 지각하는 네트워크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의 단위가 올라가는데, 0명(0점), 1명(1점), 2명(2점), 3명(3점), 4명(4점), 5명 이상(5점)이다. 즉 가족, 친구, 이웃 관련 네트워크가 각각 3문항으로 이뤄졌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의 하위차원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99, .918, .922로 각각 나타났다.

라. 복지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기본소득제도나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2005)이나 Chan & Li(2010)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총 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46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총 6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3으로 나타났다.

마. 공동체 의식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 신뢰수준과 포용성을 조사하였다. 첫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에 대해서는 “귀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문항으로 0점(‘전혀 믿을 수 없다’)에서 10점(‘매우 믿을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시범지역 거주 대상자의 지역사회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2005)이나 Wu et al.(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호혜성 개념을 활용해서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포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6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사회 포용성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51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의 요약

구분	변수	변수 내용 및 측정	신뢰도 Cronbach's α	
독립 변수	행복 및 삶의 질	행복 수준	전반적인 행복 수준, 0-10점 척도	-
		삶의 만족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얻었는지 또는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 5점 척도	.899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	-
		우울감	일주일 동안 느낀 증상(외로움, 무기력, 자존감, 수면, 식욕 등)의 빈도, 4점 척도	.886
		사회적 고립감	대화 나눌 상대 부재, 소외감, 고독감 등, 5점 척도	.909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신뢰, 규범, 참여, 5점 척도	.917
네트워크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도움이 필요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의 수, 0~5점 척도	.876	

구분	변수		변수 내용 및 측정	신뢰도 Cronbach's α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인식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와 비교한 기본소득 인식, 5점 척도	.646	
	농촌기본소득 인식	농촌기본소득에 인식수준, 5점 척도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 행동, 지원 등, 4점 척도	.751	
	신뢰도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0-10 점 척도	-	
종속 변수	지속거주의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의 향, 5점 척도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2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집단별로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 및 관련한 주요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연령집단별로 종속변수인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독립변수로 설정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나 가설검증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552명이었으며, 여성이 1,304명(51.1%)으로 남성 1,248명(48.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는 청년층 309명(12.1%), 중·장년층 1,173명(46.0%), 노년층 1,070명(41.9%)으로 중·장년층, 노인층, 청년층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052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1,351명(52.9%), 초등학교 졸업 469명(18.4%), 중학교 졸업 387명

(15.2%), 무학 165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1,351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526명(20.6%), 사별 428명(16.8%), 이혼 199명(7.8%), 별거 45명(1.8%), 기타 3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자녀 유무는 1,881명(73.7%)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71명(26.3%)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청년층 (N=309)	중·장년층 (N=1,173)	노년층 (N=1,070)	전체 (N=2,552)
성별	남성	198(64.1)	586(50.0)	464(43.4)	1,248(48.9)
	여성	111(35.9)	587(50.0)	606(56.6)	1,304(51.1)
학력	무학	1(0.3)	4(0.3)	160(15.0)	165(6.5)
	초등학교 졸업	1(0.3)	76(6.5)	392(36.6)	469(18.4)
	중학교 졸업	3(1.0)	157(13.4)	227(21.2)	387(15.2)
	고등학교 졸업	157(50.8)	681(58.1)	214(20.0)	1,052(41.2)
	대학교 졸업 이상	147(47.6)	255(21.7)	77(7.2)	479(18.8)
결혼 상태	미혼	273(88.3)	227(19.4)	26(2.4)	526(20.6)
	기혼	31(10.0)	737(62.8)	583(54.5)	1,351(52.9)
	별거	3(1.0)	28(2.4)	14(1.3)	45(1.8)
	이혼	2(0.6)	134(11.4)	63(5.9)	199(7.8)
	사별	0(0.0)	45(3.8)	383(35.8)	428(16.8)
	기타	0(0.0)	2(0.2)	1(0.1)	3(0.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0(6.5)	875(74.6)	986(92.1)	1,881(73.7)
	자녀 없음	289(93.5)	298(25.4)	84(7.9)	671(26.3)

2.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 및 그 영향변인들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06~1.21)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02~1.51)으로 모두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은 5점 척도 중 지속거주의향은 평균 4.18점,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평균 3.58점,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평균 3.43점, 사회자본 평균

3.17점,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평균 2.93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2.93점, 사회적 고립감은 평균 2.14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행복수준과 공동체 의식 수준은 10점 척도 중 각각 평균 6.01점과 5.98점 등으로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울이나 포용성 수준은 4점 척도 중 각각 평균 1.53점과 2.42점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N=2,552)

변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행복 및 삶의 질	행복 수준	0-10	6.01	1.91	-.39	.21	
	삶의 만족도	1-5	2.93	.74	-.24	.05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5	2.93	.82	-.23	-.06	
	우울감	1-4	1.53	.50	1.21	1.51	
	사회적 고립감	1-5	2.14	.91	.51	-.47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1-5	3.17	.60	-.09	.02	
	네트워크	가족	0-5	2.31	1.21	.24	-.28
		친구	0-5	2.15	1.32	.15	-.45
		이웃	0-5	1.73	1.36	.45	-.43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5	3.43	.60	-.06	.77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5	3.58	.56	-.10	.85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1-4	2.42	.47	-.09	.76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0-10	5.98	1.58	-.46	1.24	
지속거주의향		1-5	4.18	.77	-.97	1.48	

3. 연령집단별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 및 관련 변인 간 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연령집단별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 및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행복 및 삶의 질 변인 중 행복수준($F = 15.229, p < .001$)과 삶의 만족도($F = 7.714, p < .001$) 변인은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높게 행복하다고 평가했으며, 삶의 만족도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신의 삶에 가장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 관련 변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F = 202.130, p < .001$), 우울감($F = 13.903, p < .001$), 사회적 고립감($F = 97.625, p < .001$) 변인 모두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년층이 가장 높게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평가했으며, 우울감은 노년층이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비교해 더욱 높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은 노년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고독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망 관련 변인 중 사회자본($F = 86.474, p < .001$), 네트워크의 하위유형인 가족($F = 5.163, p < .01$), 친구($F = 162.828, p < .001$), 이웃($F = 30.468, p < .001$) 모두에서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자본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규범, 참여에 있어서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가족유형은 청년층이 중·장년층과 노년층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더 많다고 평가하였고, 네트워크 친구유형 역시 청년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더 많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네트워크 이웃유형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더 많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복지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중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F = 16.626, p < .001$)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F = 4.460, p < .05$) 역시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모두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 관련 변인 중 지역사회 포용성($F = 3.349, p < .05$)과 공동체 의식($F = 17.938, p < .001$) 또한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포용성은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더욱 포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은 노년층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속거주의향역시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70.658, p < .001$). 농촌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의 경우, 노년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지속거주의향 및 관련 변수 간 평균 차이 분석결과

변수		평균			F	Scheffe	
		청년층(a)	중·장년층(b)	노년층(c)			
행복 및 삶의 질	행복수준	6.37	6.12	5.78	15.229***	a,b)c	
	삶의 만족도	3.07	2.94	2.89	7.714***	a)b,c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3.83	3.45	2.84	202.130***	a)b)c	
	우울감	1.45	1.49	1.58	13.903***	c)a,b	
	사회적 고립감	1.73	2.00	2.41	97.625***	c)b)a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2.76	3.20	3.25	86.474***	b,c)a	
	네트 워크	가족	2.49	2.32	2.24	5.163**	a)b,c
		친구	3.06	2.32	1.70	162.828***	a)b)c
		이웃	1.17	1.80	1.82	30.468***	b,c)a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3.26	3.44	3.48	16.626***	b,c)a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3.49	3.58	3.59	4.460*	b,c)a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2.46	2.43	2.39	3.349*	a)c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5.60	5.91	6.17	17.938***	c)b)a	
지속거주의향		3.51	4.17	4.38	170.658***	c)b)a	

* p<.05, ** p<.01, *** p<.001

4. 연령집단별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 역시 각각 1.899, 2.000, 1.744 등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는 값이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청년층에게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 이웃과의 네트워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등이 확인되

었다. 즉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다.

〈표 5〉 청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지속거주 의향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VIF	
행복 및 삶의 질	행복수준	-.039(.040)	2.346	
	삶의 만족도	.370(.090)***	1.961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28(.067)	1.466	
	우울감	-.168(.146)	2.085	
	사회적 고립감	.052(.077)	1.792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1.718	
	네트 워크	가족	-0.082(.051)	1.595
		친구	-.085(.045)	1.351
		이웃	.096(.041)*	1.541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222(.091)*	1.449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089(.095)	1.782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063(.097)	1.101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084(.033)*	1.690	
상수		2.217(.552)***		
R ²		.218		
Durbin-Watson		1.899		
F		6.327***		

* p<.05, ** p<.01, *** p<.001

2) 중장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중·장년층의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이들의 사회자본,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고립감,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가족과의 네트워크, 행복수준 등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고립감이 낮을수록, 가족과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층에

비교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수준의 경우에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6.1%로 나타났다.

〈표 6〉 중장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지속거주 의향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VIF
행복 및 삶의 질	행복수준	-.030(.014)*	1.937
	삶의 만족도	.001(.036)	1.930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23(.027)	1.449
	우울감	-.011(.053)	1.656
	사회적 고립감	-.125(.028)***	1.541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209(.043)***
	네트 워크	가족	.043(.020)*
		친구	-.041(.021)
		이웃	-.021(.019)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03(.035)**	1.185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69(.041)***	1.385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005(.042)	1.081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071(.013)***	1.191
상수		2.441(.236)***	
R2		.161	
Durbin-Watson		2.000	
F		17.125***	

* p<.05, ** p<.01, *** p<.001

3) 노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노년층의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포용성,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가족과의 네트워크, 친구와의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등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에 더 포용적일수록, 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가족과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농촌지역 지

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4.8%로 나타났다.

〈표 7〉 노년층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지속거주 의향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VIF	
행복 및 삶의 질	행복수준	.002(.013)	2.009	
	삶의 만족도	.040(.034)	1.849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20(.024)	1.587	
	우울감	.058(.046)	1.712	
	사회적 고립감	-.032(.025)	1.594	
사회 관계망	사회자본		.070(.044)	1.712
	네트 워크	가족	.070(.018)***	1.400
		친구	-.097(.018)***	1.636
		이웃	.029(.019)	1.708
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41(.034)***	1.139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75(.040)***	1.283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포용성	.206(.042)***	1.084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030(.014)*	1.136	
상수		2.184(.238)***		
R ²		.148		
Durbin-Watson		1.744		
F		14.121***		

* p<.05, ** p<.01,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분석결과는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연령집단별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등의 순으로 지속거주의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

는 영향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에서는 삶의 만족도, 이웃과의 네트워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이 이들의 지속거주의향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장년층 집단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자본, 사회적 고립감, 가족과의 네트워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이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집단의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 가족과의 네트워크, 친구와의 네트워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만 요약해 보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이,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지역사회 포용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사회 신뢰도 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지속거주의향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에 의하며, 청년층의 지속거주의향 수준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2023)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농가인구는 20~30대 16.6만 명, 40~50대 47.4만 명, 60대 이상 140.9만 명으로, 60대 이상의 노인가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기에는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관련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 거주 청년여성에게 있어서 문화·여가와 관련한 생활 인프라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었다(김명화 외, 2021). 따라서,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의 이들의 정주를 결정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보통 지역 내 사회관계망을 통해 촉발·확산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들의 지역에서의 지속거주의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엄창욱 외, 2018). 청년층들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지역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

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년들 간의 소통 및 협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소통 공간 마련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촌지역 내 모든 연령층의 지속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소득 및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지역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임경수 외, 2006).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주민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활성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거나 지역 내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 내 여러 부처별로 제각각 지역사업이 시행되면서 명칭만 다른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주민공동체 기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스스로 수행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들 사이에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관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이 원활히 정착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마을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지역의 인재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역량 있는 마을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단기적인 사업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참여와 동의하에 진행되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랫동안 농촌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연령집단인만큼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년층에게 농촌 공간은 지속적인 삶을 제공해주는 공간이자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윤성은·한경혜, 2011). 즉 농촌지역에서 노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경험하기도 하며, 마을을 가족·친구·이웃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 평생을 거주해 오면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

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이 초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은 경제 및 고용, 사회참여,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이는 낮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최민정·권정호, 2014).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운영방식, 공동체 내 상호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양은진·김순은, 2017; 이상록·도유희, 2020; Glass, 2017; Markl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신뢰관계와 지역공동체 의식이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도입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들의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영성 외, 2019).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서도 기본소득은 공동체 의식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성 외, 2021). 이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통해, 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거주의향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환경, 생활 편의시설, 교육환경, 보건의료서비스 등 정주관련 변수가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명화 외, 2021; 남궁미 외, 2017; 안성조 외, 2016; 이지은·이경은, 2020; 이창관·박선주, 2024; 지남석·이창우, 2013; 최일진·남황우,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b). 그러나, 본 연구의 원자료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사자료에서는 이러한 주거환경이나 생활여건 및 환경 변수의 경우,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인단위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이와 같은 주요한 정주여건 변인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속거주의향을 분석을 시도하거나 가구주의 응답을 해당 가구원에게 동일하게 할당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연도 조사자료로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즉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직전에 조사하여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기본소득을 수급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이나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김동신·허성욱. 2023. “지역 청년층 및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02-121.
- 김명화·진혜민·정원철. 2021. 《[연구보고서 2021-11]: 경북 농산어촌 청년여성 정주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277.
- 김민석. 2019.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5.
- 김보현·최화식. 2004. “수도권 자치단체간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 18(1): 137-164.
- 김상희. 2012. “중고령층의 지역 내 계속거주 지향 군집의 특성 분석 - 경남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2): 47-57.
- 김수영·오찬옥·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6), 219-226.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7(4): 871-879.
- 김용진. 2013. “개인-환경 적합성 모델을 이용한 노인의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 분석”. 《주거환경》, 11(1): 51-62.
- 김용진·김성희. 2016.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405-411.
- 김중은·김성희. 2014. “신도시 주거단지의 가구 및 주택형태가 단지 내 인구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학회》, 56(1): 337-351.
- 김태준. 2010. “성인의 사회적 자본 유형별 추이 분석과 교육적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16(2): 47-67.

- 김화연·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이사 영향요인 연구 - 청년정책과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남궁미·최희용·전희정. 2017. “노인가구의 연령별 주거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1-22.
- 노대명 외. 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카사키 요시유키. 20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Social Capital과 삶의 보람감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다현·황정하. 202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생활과학연구》, 33: 57-69.
- 박종용. 2019.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과 노인들의 계속 거주와의 관계분석”. 《한국 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5(1): 109-120.
- 박주언·강은호·박영민·최삼욱·채정호. 2008. “행복과 정신건강의 긍정심리학적 접근”. 《스트레스연구》, 16(2): 107-114.
- 박준범·마강래. 2020. “고령자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8(4): 5-21.
- 박진도. 2010.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20(1): 163-194.
- 박해궁.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174.
- 백옥미. 2018.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거주환경 만족의 영향: 거주유형별 다집단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164-195.
- 성주인·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 2013.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2차연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수탁연구용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원규. 2021.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전환》.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 심광현. 2011.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 《도시인문학연구》, 3(1): 141-200.

- 심재현 외. 2017.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1/3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성조 · 김중표 · 류연수 · 김기철. 2016.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이 정주민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지역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연구》, 34: 67-85.
- 안지은 · 김국선. 2015. “노인의 정주성을 위한 주거환경 요구 조사 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0(1): 95-104.
- 양은진 · 김순은. 2017.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2): 103-128.
- 엄창욱 · 노광욱 ·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1): 327-350.
- 유영성 · 김병조 · 마주영.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이슈 & 진단》, 384: 1-25.
- 유영성 · 최광은 · 유익진. 2021.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이슈 & 진단 일반의식 조사 결과(II) -”. 《이슈&진단》, 456: 1-25.
- 유종성. 2018.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 윤성은 · 한경혜. 2011. “농촌노인들의 생활세계와 농촌 커뮤니티에서의 삶의 의미”. 《한국노년학》, 31(3): 767-793.
- 윤소영. 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경영 · 정문기 · 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
- 이경환. 2008.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3(5): 23-33.
- 이기영 · 박미진 · 류영미. 2007.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광역시 노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445-458.
- 이상대 · 이정훈 · 조희은. 2021.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원.

- 이상대 · 이정훈 · 조성택 · 조희은. 2022. 《인구소멸위험 대응 연천군 발전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 이상록 · 도유희. 2020. “농촌지역 생활공동체의 특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71-180.
- 이유태. 2018. “행복과 도덕-플라톤, 칸트, 니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91: 127-156.
- 이지나 · 황명진. 2022. “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공공사회연구》, 12(1): 124-158.
- 이지은 · 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이창관 · 박선주. 2024.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 -자 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1-33.
- 이향미. 2019.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8): 610-617.
- 임경수 외. 2006.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탁연구용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 최재녕 · 홍근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2): 1-19.
- 임준홍 · 홍성효. 2017. “도심 거주이향과 지역 내 소비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내포신 도시 주변도시 도심거주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678-686.
- 전경구 ·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11(1): 65-76.
- 지남석 · 이창우. 2013.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인식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 전라 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 《농촌계획》, 19(4): 55-71.
- 최민정 · 권정호. 2014.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사회 과학 담론과 정책》, 7(1): 103-138.
- 최순희 · 윤현숙 · 김영범 · 임연옥. 2018.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

- 향”. 《노인복지연구》, 73(1): 111-132.
- 최영출. 2019.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3(1): 1-26.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
- 통계청. 2023.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a.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1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b.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182.
- 홍석한. 2017.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8(3): 173-198.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홍성효·임준홍. 2023.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연구》, 7(2): 133-153.
- 황금희. 2018. 《경기도 고령인구 삶의 만족과 정주생활 커뮤니티 영역분석》. 수원: 경기연구원.
- An, Siyi., Aoki, Toshiaki. & Suzuki, Atsushi. 2021. “Why People Settle in Shrinking Communities: A United Framework of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Cognitive Factors”. *Sustainability*, 13(24): 1-23.
- Borrrup, Tom. 2020.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in the Post-COVID-19 World*.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도시재생×문화도시’ 웹포지엄.
- Cantril, Hadley. 1965. *The Patterns of Human Concern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han, Kimmy. Wa. & Li, Stella. Yiyan. 2010. “Understanding Consumer-to-consumer Interactions in Virtual Communities: The Salience of Reciproc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3(9-10): 1033-1040.
- Clark, W. A. V., & Onaka, Jun. L. 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1): 47-57.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d., Emmons, Robert. A., Larsen, Randy. J. & Griffin, Sharon. 1985.

-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Glass, Anne. P. 2017. “A Longitudinal Study at an Elder Cohousing Community: After 10 Years, Who Left and Who’s Left?.” *Innovation in Aging*, 1(S1): 305.
- Idler, Ellen. L. & Benyamini, Yael. 1997.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 Review of Twenty-seven Community Stud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1): 21-37.
- Jahn, Jens. Eberhard. 2012. *A Basic Income for Rural Areas?: A Proposal for a Strategic Realignment of Agricultural, Social and Structure Policy within the EU*.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12, Munich.
- Lubben, James., Gironde, Melanie. & Lee, Alex. 2002. “Refinements to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The LSNS-R.” *Behavioral Measurement Letter*, 7(2): 2-11.
- Markle, Elizabeth. A., Rodgers. Rachel., Sanchez, William. & Ballou, Mary. 2015. “Social Support in The Cohousing Model of Community: A Mixed-methods Analysis.” *Community Development*, 46(5): 1-16.
- Morales, Andrea. C. 2005. “Giving Firms an “E” for Effect: Consumer Responses to High-effort Firm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806-812.
- Timmer, C. Peter. 1988. *The Agricultural Transformatio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 Perlman, Daniel. 2004. “European and Canadian Studies of Loneliness among Seniors.” *Canadian Journal on Aging*, 23(2): 477-493.
- Putnam, Robert. D., Leonardi, Robert. & Nonetti, Raffaella. Y.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dloff, Lenore.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ussell, Dan., Peplau, Letitia. A. & Cutrona, Carolyn.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Ryff,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arol. D. & Singer, Burton.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30-44.
- Standing, Guy.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nguin Books.
- Van Parijs, Philippe. 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and Society*, 32(1): 7-39.
- Wu, Joshua. B., Hom, Peter. W., Tetrick, Lois. E., Shore, Lynn. M., Jia, Liangding., Li, Chao. Ping. & Song, Lynda. Jiwen. 2006. The Norm of Reciprocit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the Chinese Contex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2(3): 377-402.
- «BIEN». 2021. "About basic income."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검색일 2024년 03월 28일.

Factors Affecting Continual Residence Intention in Rural Areas: Focusing on Gyeonggi-do Rural Basic Income Pilot Project Area

Dahyun Park & Haeil Jung & Han Il Chang & Jeongha Hw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ontinual residence intention in rural areas divided by age group. The risk of reg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is intensifying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survey data from the first year of the Gyeonggi-do rural basic income pilot project were used to classify the population by age group, including young people (19-34 years old), middle-aged people (25-64 years old), and elderly people (65 years old or older).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living in rural areas by age group were analyz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intention to continue living in rural areas were found to differ by age group. In the young age group, life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middle-aged age group, social capital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elderly age group,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community inclusive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order to prevent rapid disappearance of rural areas and increase intention of local residents to continue living,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ted policies by age group and provis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such as a rural basic income project are needed. This means that rural basic income can increase local residents'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there.

※ Keywords: Rural basic income, Continual residence intention, Sense of community